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③	2	②	3	①	4	⑤	5	⑤
6	②	7	④	8	④	9	①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④
16	④	17	③	18	②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정약용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대화의 스승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은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단(四端)을 확충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인간이 심미적 단계와 윤리적 단계를 거쳐 종교적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 신에게 의지하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왕수인의 주장이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心]이 곧 이치[理]라 보고,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사물[物]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앎과 행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며, 마음 안의 참된 앎[良知]을 실천하여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ataraxia]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바람직한 삶으로 보았다.

5. [출제의도] 데카르트와 흄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데카르트, 흄은 흄이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한 지식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며 이성에 의한 방법적 회의론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구하고자 하였다. 흄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은 덕과 악덕을 구별할 수 없으며,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덕과 악덕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6. [출제의도] 롤스와 왈처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롤스, 흄은 왈처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된다고 보았으며,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반면 왈처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분배 원칙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아퀴나스, 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세계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최고 선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되며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철학적 지혜를 갖춘 철인(哲人)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정의로운 국가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상 국가에서는 수호자 계층이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결과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과 윤리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공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흄은 맹자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덕을 갖추 백성들을 어진 마음[仁]으로 보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통치자가 인간이 지닌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불의한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공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통치자가 먼저 자기를 수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修己安人]를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의 '나'는 공동체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사상가'는 자유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며 인간을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 한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12. [출제의도] 순자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순자, 흄은 장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고 보고, 예의와 법도에 의한 교화를 강조하였다. 장자는 시비(是非)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고, 자연의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수정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비교하기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로 초래된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부분적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계획 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14.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 흄은 소크라테스이다. 고르기아스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주의적 진리관을 주장하였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유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

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가) 사상가는 이이, (나)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사단이 이(理)가 발한 것으로 본래 선한 것이며,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으로 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며,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理貴氣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사단은 칠정 속의 선한 측면이므로 사단과 칠정이 발생하는 연원이 다르지 않으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 이해하기

(가)는 모어의 유토피아, (나)는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이다.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이다. 공산 사회는 계급이 소멸되고 생산 수단이 공유되며,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17. [출제의도] 칸트와 벤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칸트, 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으며, 도덕은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벤담은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의 원리를 옹고 그릇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로 제시하였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과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통해 대립되는 종파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나와 너,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동학과 위정척사 비교하기

같은 동학 사상가 최계우, 흄은 위정척사를 주장한 이항로이다. 동학은 고유 사상과 유·불·도 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홉스, 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 군주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리나 이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되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합의의 산물로 보았다.